

4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나주 어린이 큰잔치' 개최

'같이 가치' 주제 체험·공연 다채 전국락페스티벌 호남예선도

나주시와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주역들을 위한 풍성한 큰잔치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어린이·학부모 등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나주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같이 가치(같이 하여 가치가 있다)'라는 주제로 총 2부에 걸쳐 나주 지역 어린이집 재롱잔치, 기념식, 각종 공연과 체험·이벤트, 놀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1부 기념식은 로봇공연, 나주시립소년

소녀합창단 공연, 어린이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 표창, 축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2부는 댄스, 특공무술, 레크레이션, 벌룬&버블, K-POP 공연, DJ 파티, 부대행사로는 직업체험, 체험마당, 교육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등이 예정되어 있다.

놀면서 배우는 체험 부스도 다채롭다. VR기기로 가상 세계를 들여다보는 AR·VR, 전남 관광 메타버스 체험 부스를 운영해 미래 인재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집에 차곡차곡 모아왔던 투명페트병, 종이팩, 폐건전지를 자원순환 체험 부스로 가져오면 필통, 새 건전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 이동도서관, 비즈레진공예, 바다속 디퓨저 만들기, 엄마습터, 데코넨

헤어핀 꾸미기, 비즈 팔찌·반지 만들기, 추억의 신발 컬링던지기, 공룡과 같이해요, 스타 썬그라스만들기, 똑딱 나무야 놀자, 페이스페인트, 타투, 우드웨이커 만들기, 꽃액자꾸미기, 바람개비 꽃모양 만들기, 소방·경찰관 체험, 천연염색, 비누·가방 만들기 등 20여 곳의 체험 부스도 가득하다

또 팝콘, 솜사탕, 풍선놀이, 아이스크림, 에어스포츠 농구, 에어스포츠 사격, 나주시에 바란다, 메타버스, 드론체험 코너 등도 준비돼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아타이어즈,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여러 단체에서도 각종 후원품과 경품을 제공해 잔치에 풍성함을 더했다.

행사 이후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나주시 빛가람동주민자치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락페스티벌 호남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귀순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올해로 102회째 맞는 어린이날 행사는 '같이 가치'라는 주제로 준비했다"며 "볼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 야외무대에 설치된 어린이날 큰잔치에 많이들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채로운 공연 볼거리, 놀면서 배우는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들의 권리 증진과 진로·체험기회를 폭넓게 확대해 나주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화순 연등축제 4일 개최

2024년 제6회 화순 연등축제가 오는 4일 화순읍 광덕지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제6회 화순 연등축제는 화순군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화순군이 후원한다.

이번 연등축제의 행사로 오후 3시부터 무술 경연대회가 열리며, 더불어 차 공양 체험, 염주 팔찌 만들기, 풍선 아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오후 6시 연등법회 및 봉축가를 시작으로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등행렬은 오후 7시40분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달 26일 '즐거운 배움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2024년 곡성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7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진행했다.

30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따르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한 학생당 3번의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진행했다.

미래직업, 창의 직업체험, 생태환경 분야 등 60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드론 전문가와 AI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진로체험과 에코 디자이너 등에 관심이 뜨거웠다.

오후 시간에는 꿈놀자 축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화순군, 지원단 운영

화순군은 30일 미세먼지 감축 및 산발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관행적으로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발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운영은 4~5월, 11~12월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0cm 미만의 잔가지, 고춧대 등 파쇄를 지원한다.

파쇄 지원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국한해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고효능,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무상 지원한다.

유의 사항은 경사도가 심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농지 및 고추 끈 미세거, 영농부산물에 일정 장소에 수거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난달 26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즐거운 배움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곡성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를 열었다.

곡성군 제공

전국대나무공예대전 대상에 '대나무 다도세트'

43개 작품 선정... 11일부터 전시

담양군은 대나무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경향을 접목한 창작품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제43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출품작에 대해 수상자를 결정·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예대전에서는 대나무를 주 소재로 다른 소재와 융복합한 창작품 또는 대나무공예 전통 기술을 이용한 대나무 공예품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상품성, 실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3개 작품, 190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황미경·임어진 씨의 '대나무 다도세트(사진)'가 선정됐다. 다도의 특성상 내열 소재와 울질로 마감해 내구성을 높이고, 죽세공에 익숙시 기법으로 가미



한 조형미를 높여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문화체육부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최경수 씨 작품 '한 바구니에 담다'로 군수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에는 김정호 씨 작품 '어울림'과 서석근 씨 작품 '신형 차바구니'가 선정돼 각각 군수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장려상에는 김관철, 전재용, 한경치, 김명숙, 손민정 5명이 수상했으며, 특선

11명, 입선 21명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다.

이번 공예대전 수상작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한국대나무박물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현 심사위원장은 "43회째 이어지고 있는 공예대전은 대나무공예에 대한 전문성과 열의, 실험적인 작업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작가가 참여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동시에 대나무 고장이라는 도시성과 역사성이 담겼다"며 "이번 공예대전은 대나무공예의 전승과 창작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현과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함평 나비대축제장서 수돗물 시음회

수돗물 인식 제고위해 마련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지사장 김동진)는 30일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수돗물 시음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못맛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시판 생수와 비교하였을 때 수돗물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의견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김동진 전남북부권지사 지사장은 "이

번 시음회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음용수인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영광군, 일제정리 사업 추진

영광군은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 실시 후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하나 일부 측량신청인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지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전환 및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지되지 않은 토지 중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지 가능 약 800필지를 조사하여 측량신청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사업대상 토지가 정리지 완료되면 측량비로 지출된 약 2억4000만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햇빛가득 육아&중고마켓 11일·2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군이 육아 비용을 줄이고 육아 가정 경험을 공유하는 중고장터를 마련했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11일과 25일 담양문화회관(담양읍 지점6길 29) 앞 광장에서 '담양 햇빛가득 육아&중고마켓' 행사를 개최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육아 가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들의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육아·중고물품 장터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 공간 운영과 매직별루쇼, 매직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담양=신재현 기자